

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·플랜트 시장진출 방안

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
아프리카팀 연구위원
parkyh@kiep.go.kr

전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
아프리카팀 전문연구원
hljeon@kiep.go.kr

장종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
아프리카팀 연구원
jmjang@kiep.go.kr

김영기 한국수출입은행 실장
youngkim@koreaexim.go.kr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최근 들어 아프리카가 ‘위기의 대륙’에서 새로운 ‘기회의 시장’으로 부상 중에 있음.
 -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내전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, 자원개발 및 인프라 건설 붐이 계속 되면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%대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.
 - 지난 2000년 아프리카를 “희망 없는 대륙(The hopeless continent)”으로 묘사했던 이코노미스트(The Economist)는 2011년과 2013년에는 각각 “부상하는 아프리카(Africa rising)”, “희망 넘치는 대륙(A hopeful continent)”을 표지기사로 다룸.
-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극히 낙후되어 있는 제반 인프라와 산업기반 건설에 매진하고 있어 건설·플랜트 건설 붐이 조성되고 있음.
 - 자원개발과 연계한 건설·플랜트 진출 가능성을 고려하면 ‘제2의 중동’이라는 평가도 가능함.
 - 아프리카 자원의 상당부분은 장기화된 내전과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어,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수송 인프라는 물론 가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, 전력산업설비 등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 - 아프리카는 유망한 신흥자원개발 지역으로 오는 2020년경에는 전 세계 석유생산의 30%(현재 10% 내외)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.
 - KPMG와 Ernst&Young 등 컨설팅 회사들은 아프리카를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신흥 건설시장 중 하나로 꼽고 있음.
- 이에 따라 우리정부와 건설업계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.
 -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국내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, 중동 및 아시아 등 기존의 시장에 비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.
 -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주요 건설기업의 인력 및 장비가 대규모로 진출해있는 중동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.
- 그러나 이러한 아프리카 시장진출 기회의 이면에는 수많은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,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(ECA)의 금융지원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.
 -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하고, 계약위반, 수용·몰수, 외환통제 등 국가위험이 높음.

- 또한 남아공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지 금융조달 여건이 열악하고, 신용등급도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임.
-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방안을 제시함.
 - 건설·플랜트 사업은 산업 특성상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,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운영해야 하므로 위험에 대한 경감대책이 핵심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.

2. 조사 및 분석 결과

1) 아프리카 건설·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은 세계은행 등 MDB와 유럽의 양자 개발금융기관들이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고 있음.

- 세계은행,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, 유럽투자은행(EIB) 등 MDB들은 선도적 투자 및 위험 완화 등을 통해 아프리카 개발금융 지원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.
 -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제 상업은행들은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독자적인 금융제공을 기피하고 있어, MDB들이 선도적 투자 또는 위험보증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동원(mobilization)하고 있음.
 - 세계은행을 비롯한 MDB들은 그동안 공공개발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어왔으나,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빈곤해소에 있어 민간부문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인프라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.
-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양자 개발금융기관으로는 CDC(영국), Proparco(프랑스), DEG(독일) 등이 있으며, 이들은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있음.
 - 이들 유럽 개발금융기관은 사업성은 높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민간사업에 대해 투자 및 용자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 또는 대출기관의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촉매제(catalyst) 역할을 하고있음.

[표 1] 유럽 개발금융기관들의 소유 구조 및 주요 특징

| | 소유 구조 | 주요 특징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CDC | 정부(DFID) 100% 소유 * DFID: 영국 국제개발부 | 개도국 투자 비중 75%(아프리카 투자 비중 50% 이상) |
| DEG | 정부(KfW) 100% 소유 | EAI(아프리카 인프라펀드)와의 협력협정 체결: 에너지 및 ICT 투자 확대 |
| SwedFund | 정부(외교부) 100% 소유 | 상업자본 조달이 여의치 않은 분야에 집중 투자 |
| Norfund | 정부(외교부) 100% 소유 | 아프리카(SSA)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(현재 4개 지역에 집중: 남부 아프리카, 동부 아프리카, 동남아시아, 중미) |
| Proparco | 정부 + 민간 | 인프라, 금융, 기후변화 등에 집중 투자 |
| FMO | 정부 + 민간 | 저소득 국가에 40% 이상 투자 |
| SIFEM | 민간기업 | 최소 60%를 1인당 GNI 6,000달러 미만의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투자 |

자료: Christian Kingombe *et al.*(2011, 1, pp. 3-4)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.

2) 개발금융기관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을 크게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인프라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.

- IBRD 및 IDA는 2012년 기준 전체 용자의 20% 이상을 아프리카에 할당했으며, 지원 분야는 대규모 발전소에서부터 도로, 교량, 수자원 인프라, 통신 등 다양함.
 -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용도가 낮은 최빈국인 관계로 IDA의 용자비중이 90%로 절대적으로 높고 IBRD 비중은 10%에 불과함.
 - 향후 15년 내에 IDA 수혜국의 절반 이상이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IDA 지원은 아프리카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.

[표 2] IBRD 및 IDA의 아프리카 용자제공(2012년)

| 지역 | 비중 | 분야(아프리카) | 비중 |
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|
| 아프리카 | 21% | 수자원 · 위생 | 18% |
| | | 교통 | 5% |
| 남아시아 | 18% | 공공행정 | 25% |
| | | ICT | 1% |
| 중동 · 북아프리카 | 4% | 농림수산업 | 10% |
| | | 교육 | 3% |
| 중남미 | 19% | 에너지 · 광업 | 18% |
| | | 금융 | 1% |
| 동아시아 · 태평양 | 19% | 보건 등 사회서비스 | 15% |
| | | 공업 · 교역 | 4% |
| 유럽 · 중앙아시아 | 19% |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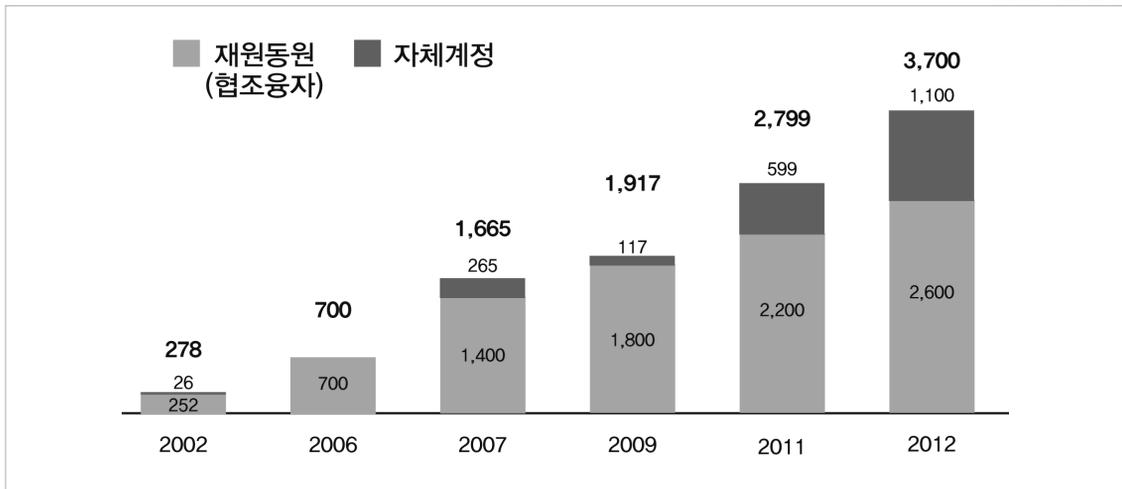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Bank 홈페이지(검색일: 2013. 8. 25)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.

● IFC의 금융지원은 그동안 중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었으나, 최근 들어서는 아프리카로 확대되고 있음.

- IFC의 아프리카 금융지원 규모는 2002년 2억 7,800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37억 달러로 541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이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고 있음.
- IFC는 아프리카 민간부문 개발 잠재력에 주목하고 투자 및 용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는데, 2012년 현재 아프리카 21개국 주요 도시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음.

[그림 1] IFC의 아프리카 금융지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IFC(2012, p. 3).

● 개도국에 대한 해외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MIGA는 최근 들어 분쟁국가의 전후 복구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, 2012년 기준 아프리카(사하라 이남)가 MIGA 전체 보증 건수의 34%(금액 기준으로는 24%)를 차지함.

- MIGA는 1988년 설립 이후 2012년까지 전 세계 지역에 대해 270억 달러의 보증을 제공했는데, 인프라 개발 지원비중이 58%로 가장 높음.
- MIGA는 서아프리카 가스수송망, 남부아프리카 가스사업, 지부티 항만개발사업, 우간다 수력발전 프로젝트, 르완다 전력개발사업, 케냐-우간다 철도망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음.

[표 3] MIGA의 보증지원 현황(2012년)

| | 사업 건수 | | 금액 |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건수 | 비중(%) | 백만 달러 | 비중(%) |
| 아시아·태평양 | 4 | 8 | 305.9 | 12 |
| 유럽·중앙아시아 | 20 | 40 | 928.0 | 35 |
| 중남미 | 3 | 6 | 353.6 | 13 |
| 중동·북아프리카 | 6 | 2 | 432.9 | 16 |
| 아프리카(SSA) | 17 | 34 | 636.4 | 24 |

자료: MIGA 홈페이지(MIGA Annual Report 2012, 접속일: 2013. 7. 30).

- 유럽투자은행(EIB)이 아프리카 개발지원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인프라 개발로, 2007년에는 'EU-아프리카 인프라 신탁기금(ITF)'을 조성하는 등 인프라 개발지원을 확대하고 있음.
 - 이 기금은 EU 회원국의 무상원조와 EIB의 장기차관을 결합한 것으로 아프리카연합(AU)에서 개발 우선순위가 높다고 인정하거나 역내 통합에 기여하는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함.
 - EIB는 모로코 항만개발(Tanger Med), 탄자니아 송전망 사업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을 제공한 바 있음.
-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 역시 인프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, 2012년 전체 차관 및 무상공여 가운데 인프라 분야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.
 - AfDB는 인프라 개발을 통해 역내 시장통합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역내 복수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내 통합적인 인프라 사업(trans-Africa Infrastructure)을 우선적으로 지원함.
 - 콩고(DRC) 구리·코발트 개발사업, 세네갈 다카르 컨테이너터미널 확충사업 등 여러 건의 인프라 사업에 대해 금융을 제공함.

[표 4]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의 부문별 차관제공 비중(2012년 승인기준)

(단위: 백만 UA)

| | 건수 | 금액 | 비중(%) |
|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|
| 농업·농촌개발 | 20 | 308.11 | 8.6 |
| 교육·보건 등 사회서비스 | 21 | 525.33 | 14.6 |
| 인프라 | 46 | 1,763.30 | 48.9 |
| - 수자원 인프라 및 위생시설 | 13 | 269.68 | 7.5 |
| - 에너지 인프라 | 14 | 889.66 | 24.7 |
| - 운송 인프라 | 19 | 604.16 | 16.8 |
| 금융 | 4 | 402.76 | 11.2 |
| 다부문(multisector) | 43 | 505.38 | 14.0 |
| 광업 | 1 | 97.73 | 2.7 |

자료: AfDB(2013), p. 23.

3) CDC(영국), Proparco(프랑스), DEG(독일) 등 유럽의 양자 개발금융기관들은 개발효과(development impact)와 수익성(financial return)이 동시에 기대되는 민간 프로젝트를 지원함.

- 이들 유럽 개발금융기관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적원조기관이지만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상업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음.
 - 이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개발효과와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데, 이는 사업 발굴 및 타당성 평가 등에 있어 다년간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서 비롯됨.
- 영국의 개발금융기관인 CDC는 식민지적 관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, 2011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집중화방침을 결정함.
 - 현재 CDC 운영 지침에는 전체 신규투자의 75%를 저소득국(1인당 GDP 905달러 미만)에, 그리고 이 중 50%를 아프리카(사하라 이남)에 투자하도록 명시되어 있음.
 - CDC는 지분출자의 절반 가까이를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있으며, 주로 과거 식민지 국가인 케냐, 나이지리아, 남아공, 가나, 우간다, 탄자니아에 집중하고 있음.
 - CDC는 주로 현지사정에 정통하고 사업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펀드 운용사를 통해 현지기업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음.
 - 그동안 CDC는 탄자니아 동부해안의 Songo 섬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하여 이를 수도인 다루살렘 소재 발전소로 운송하는 대규모 가스발전 플랜트 사업, 30만 도시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우간다 송전망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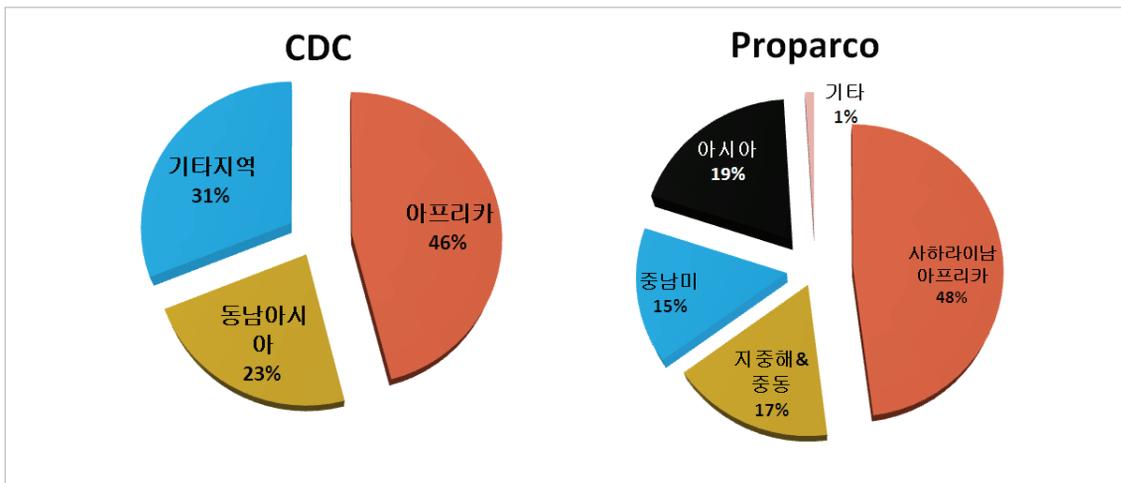
[표 5] CDC의 대표적인 아프리카 투자 사례

| 기업 (분야) | 국가 | 사업 내용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Kelvin (발전소) | 남아공 | - 석탄을 이용한 600MW급의 발전소로 요하네스버그 지역에 전기 보급 - CDC의 투자(2,500만 달러)로 플랜트 설비교체(이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전기 공급) |
| Sidi Krir (발전소) | 이집트 | - 천연가스를 이용한 685MW급의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알렉산드리아 인근에 위치 - 이집트 전기주회사(Egyptian Electricity Holding Company)에 전력 판매 |
| Songas (천연가스) | 탄자니아 | - Songo 섬에 천연가스 정제공장 건설 - Songo 섬과 수도(다루살렘)를 연결하는 225km 길이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 |
| Umeme (송배전) | 우간다 | - 아프리카펀드(Actis, Infrastructure-2)를 통해 2005년부터 4,000만 달러를 투자 - CDC가 Umeme 사 지분 100%를 소유 |
| HTN (통신) | 나이지리아 | - 아프리카펀드(Helios 등)를 통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3억 달러 이상을 투자 - HTN 사의 매출액은 3,100만 달러, 이익금은 1,300만 달러이며, 현재 다른 아프리카 지역으로 사업 확장 추진 중 |

자료: CDC 홈페이지(접속일: 2013. 7.27)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.

- 프랑스 개발금융기관인 Proparco 역시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이 매우 두드러지는데, 현재 전 세계 14개의 해외사무소 가운데 아프리카가 8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.
 - Proparco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전체 사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.
 - Proparco는 CDC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금융제공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을 통해 금융을 제공함.

[그림 2] CDC와 Proparco의 지역별 투자비중(2012년)



자료: CDC 홈페이지(접속일: 2013. 9. 10); EDF(2013, p. 44).

- 독일의 개발금융기관인 DEG는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아프리카와의 역사적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업비중은 높지 않지만, 최근 들어 협조용자를 통해 아프리카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음.

4) 성격이 다른 다수의 금융재원들이 협조용자(co-finance) 형태의 금융 패키지를 구성

- 대규모 건설·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, 통상적으로 MDB와 양자 개발금융기관들이 금융지원을 주도하고 있으며, 수출신용기관(ECA), 상업은행 등이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.
 -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.

- 아프리카 사업에는 국가 및 사업 분야를 불문하고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대주요 참여하고 있는데, 그 수가 적게는 2~3개에서 많게는 6개 기관에 이르고 있음.
 - 프로젝트 참여 금융기관은 다자 및 양자 개발금융기관, 수출신용기관(ECA), 상업은행, 국부 펀드, 인프라 펀드, 이슬람금융 등 다양함.
 - 아프리카에는 여러 가지의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들이 상존해 있는 데다가 국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조용자의 형태를 띠고 있음.

[표 6] 아프리카 건설·인프라 프로젝트의 금융기관 참여 사례

| | 사 업 명 | 참여 금융기관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나이지리아·베냉·토고·가나 | 서아프리카 가스 수송망(WAGP) | IDA, MIGA, OPIC(미국), Zurich(스위스) |
| 남아공·모잠비크 | 남부아프리카 가스 프로젝트 | IBRD, MIGA, EIB, DBSA, ECIC, SCMB |
| 지부티 | 지부티 항만 프로젝트 (이슬람 금융 활용) | MIGA, SCB, 두바이이슬람은행, 독일은행(WestLB AG) |
| 우간다 | 수력발전(Bujagali) | IFC, EIB, AfDB, Proparco, DEG, FMO(네덜란드), SCB, ABSA |
| 르완다 | 전력개발 프로젝트(Kivu Watt) | MIGA, AfDB, FMO, BIO, EAIF |
| 케냐·우간다 | 철도망 프로젝트 | IFC, IDA, AfDB, KfW(독일), FMO, BIO |
| 모로코 | 항만개발(Tanger Med) | EIB, AFESD(아랍펀드) |
| 탄자니아 | 송전망 사업 | IDA, EIB, AfDB, JICA(일본), EDCF(한국) |
| 콩고(DRC) | 구리·코발트 개발사업 | EIB, KfW, DBSA, IDC, OPIC, ONDD, EDC |
| 세네갈 | 다카르 컨테이너 터미널(DCT) | MIGA, AfDB, SCB |
| 탄자니아 | 가스발전프로젝트(Songo-Songo) | IDA, EIB, CDC |
| 우간다 | 송전망 프로젝트(Umeme) | MIGA, IDA, CDC |

자료: 연구보고서의 3장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.

3. 정책 제언

1) 아프리카의 제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협조용자의 확대가 필요함.

- 아프리카는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독자적 금융지원 확대는 용이하지 않으므로, 해외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조용자 형태의 금융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금융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함.
 - 사업소재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갖고 있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조용자는 계약위반, 수용 및 몰수, 송금제한 등과 같은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아프리카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함.

-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이 단독으로 지원이 곤란한 대형사업에 대해 다른 협조용자기관들과 공동으로 지원하게 되면,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.
 - 아프리카는 2000년대 들어 내전 감소와 자원개발 붐 등으로 인프라 사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협조용자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.
- 일차적으로는 개발금융기관 및 선진국 ECA들과의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, 이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금융상품과 결합하는 복합금융(Multi-source financing)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
 - 나아가 이들 금융기관 이외에도 선진국 원조기관, 국제 상업은행, 현지 금융기관, 국부펀드, 투자펀드, 이슬람금융 등 다양한 금융 재원들과도 금융협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.
 - 이들 금융기관들은 그 성격에 따라 지원목적과 정책,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므로, 국가 및 사업별로 최적의 협조용자 그룹을 구성함으로써 위험경감과 재원조달의 극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[표 7] 금융조달 재원별 주요 특징

| 다자개발은행 (MDB) | 수출신용기관 (ECA) | 양자개발금융기관 (DFI) | 아프리카 현지은행 (Local Bank) | 국제상업은행 (ICB) |
|---|---|--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제개발 지원 - 대출 · PRG/PRI 제공 - 장기 · 저리(민간사업의 경우 상업조건 지원) - 지원규모 작음 - 절차적 투명성 중시(내부 절차 복잡) - 지원경험 많음 - 여타 재원 조달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국기업 수출 · 투자 지원 - 대출 · PRG · 보험 제공 - 조건부(tied) 지원(부적격 국가 지원 불가) - 아프리카 지원경험은 비교적 적음 - 국익 · 경제 협력 고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효과 및 상업성이 높은 민간사업 지원 - 발전 등 인프라 중점 지원 - 지원경험 많음 - CDC(영국)/Proparco(프랑스)/DEG(독일) 등 유럽이 적극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지통화 대출 - 남아공 등 일부 국가 이외에는 취약 - 금융심사 기법의 미발달로 협조용자 참여에 소극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윤 극대화 추구 - 보증부 대출 - MDB 등 DFI 및 ECA 지급보증 하에 협조용자(리스크에 민감) - 일부 은행의 경우 지원경험 많음 |

자료: 박영호 외(2012), p. 201 수정 · 보완.

- 협조용자는 자금력, 금융지원 경험 및 노하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, 리스크 경감을 위한 수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.
 - 그동안 한국수출입은행은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개발사업, 모로코 석탄화력발전사업, 이집트 정유사업 3건의 민자사업에 대해 MDB 및 ECA 등과 협조용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였음.
 - 공공사업의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을 통해 아프리카 사업에 대해 세계은행,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 등과 총 6건의 협조용자를 제공한 바 있음.

[표 8] 한국 유상원조(EDCF)의 협조용자 아프리카 사업

| 국가 | 승인 년도 | 프로젝트 | 금액(승인액) | | 협조용자 기관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| | 백만 원 | 백만 달러 | |
| 마다가스카르 | 2007.12 | 톨리아라 주 35번 국도 개보수 사업 | 15,354 | 14.12 | AfDB |
| 탄자니아 | 2008.12 | 킬라만자로-아루샤 송전망 확충사업 | 27,184 | 25.0 | World Bank |
| 모잠비크 | 2009.11 | 나칼라 연결도로 개보수 1차 사업 | 21,747 | 20.0 | AfDB |
| 말리 | 2009.12 | 관개개발 프로그램 1단계 사업 | 23,470 | 21.8 | AfDB |
| 우간다 | 2010.9 | 교육개선사업 | 29,144 | 26.8 | AfDB |
| 탄자니아 | 2010.9 | 이링가-신양가 송변전망 확충사업 | 39,598 | 36.42 | World Bank/AfDB |

자료: www.odakorea.go.kr(접속일: 2013. 9. 25).

2) 진출 분야와 관련하여 경제개발 효과가 높은 인프라 개발참여를 들 수 있음.

- 개발금융기관들은 경제개발 효과가 높거나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국경간(cross-border) 인프라 사업, 그중에서도 에너지(전력), 운송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.
- 케냐-우간다 철도망 사업의 경우, 내륙국가인 우간다가 물류망과 수출 루트를 확보함으로써 국경을 접하고 있는 케냐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개발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.
 - 만일 우간다 국내 이용만을 목적으로 철도사업이 추진되었다면 개발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의 금융지원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. 철도사업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데다가 수요예측이 어려워 시장위험이 높고 사업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.

3) 위험분석 및 사업성에 근거한 사업선정

- 아프리카 진출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위험경감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중요함.
 - 아프리카는 쿠데타 등에 따른 정정불안 이외에도 거시경제의 불안정, 금융·법률·상법 등 제반 사업관련 제도의 미비, 송금 중단 또는 지연, 정책 및 제도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일반 상거래의 위험이 높음.
 - 사업성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원조달에 상당한 제약이 수반되고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장기간이 소요됨.
 - 우리 기업이 단순히 시공에만 참여하는 경우라도 사업성과 재원조달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.

- 사업주로 참여할 경우에 위험분석 및 사업 타당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,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.
 - 아프리카의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자금, 환경영향평가, 입찰서류 준비 등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(전체 사업비의 약 4%)과 시간이 소요됨.
 - 아프리카에서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25개국이며 이 중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함.
 - 사업타당성 확보는 민간투자자의 사업 참여와 성공적인 재원조달과 직결되는데, 아프리카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은 철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였음.

4) 금융자문(Financial Advisory) 서비스 활용

- 국내 금융기관의 자문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금융조달에 있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금융자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.
 -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, 프로젝트 발굴에서부터 출자, 대출, 보증 등에 이르기까지 ‘맞춤형’ 금융자문 서비스는 충분치 않은 상황임.
 - 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자문사는 아프리카에서 오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소재국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이 정통할 뿐만 아니라, 금융조달 및 위험경감 등에 대해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.
 - 금융자문기관은 사업주를 도와 프로젝트 준비단계에서 사업의 잠재적 또는 명시적인 위험에 대한 경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, 금융조달 가능성(bankability)을 진단하고 자금수요에 대한 금융계획(financial planning)을 수립함.
- 금융자문 서비스는 주로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갖춘 투자은행(investment bank)이 맡고 있는데,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주로 유럽계 은행들이 금융자문을 주도하고 있음.
 - 이들 금융자문기관들은 아프리카 사업에 있어 사업구조 자문 및 사업타당성 검토, 자금조달계획 수립, 재무 모델 작성 및 금융계약서 협상 등 전반적인 금융자문 서비스와 차입금 조달지원 등 금융추진(Mandated Lead Arranger: MLA)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.

[표 9] 아프리카의 주요 금융자문사(2012년 기준)

| 순위 | 금융 자문사 | 금액 (백만 달러) | 거래 건수 | 비중(%) (금액기준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 | Societe Generale | 3,697.50 | 1 | 65.6 |
| 2 | Ernst & Young | 838.03 | 3 | 14.9 |
| 3 | HSBC | 350.00 | 1 | 6.2 |
| 4 | Fieldstone Private Capital | 326.02 | 1 | 5.8 |
| 5 | Macquarie | 254.81 | 1 | 4.5 |
| 6 | Endeavour Financial | 170.00 | 1 | 3.0 |
| | 총 계 | 5,636.36 | 8 | 100.0 |

자료: Infrastructure Journal(www.ijonline.com/LeagueTables, 접속일: 2013. 9. 20).